성경 예언 해설집 〈28회〉

세례 요한

해설

(지난호에 이어서)

예수 승천에 관한 기사는 복음서 원문에는 없는 기사를 삽입시킨 대목이 있으니 복음서에서 예수가 제자들과 이별할 때 원문에는 "떠나시니" 하였으나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은 주석을 가미하여 "떠나 올리우시니" 하였다. 그것은 예수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승천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올라갔다고 첨부하여 기록한 것이다. 또한 예수가 제자들과의 이별 장면에서 원문에는 "저희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기록하였으나 성경 편집자들은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였다"고 가미하여 첨부하였다.

예수교가 인류에게 숭배를 받으며 지금까지 유지 발전하는 원인은 예수가 생전에 예언한 대로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이 실현되었다는 성경 기사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예수가 부활 승천하였다는 성경 기록이 사실인가 아니면 신화설인가. 예수가 부활 승천하였다는 사실은 책에 써있는 것뿐이요 2천년이 되도록 살아있는 예수가 그를 신봉하는 신도 중에 한 사람과도 대화한 사실이 없다. 지구상에 수많은 신도들이 금식 기도 하면서 예수를 부르고 재림을 고대하여도 응답을 받은 자가 없으니 성경 기사는 신화설로 취급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이다.

회교 창시자 마호메트가 시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사 드린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였다고 회교 신도들이 신앙하고 있으며 승천한 그 자리에 회교성전을 세우고 그들의 하나님 알라 신에게 경배하고 있으니 시온산이 유대교와 예수교의 성지라고 하나 현실은 회교 수중에 있으니 예수가 승천하였다는 성지가 적대 관계에 있는 회교의 성지가 왜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시온산 동예루살렘을 회교 수중에서 탈환하려고 지금까지 싸우다가 포기하고 아랍의 잠정적 소유로 인정하고 평화 협정을 맺은 것은 사실상 유대교나 예수교가 회교에게 굴복한 것이다. 3천 년간 시온주의를 부르짖던 유대교의 목소리도 모기 소리가 되었다고 회교는 조롱하고 있다.

종교마다 교조(教祖)를 신성시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늘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승천하였다는 신화설을 사실처럼 인류에게 선교하는 것이다.

예수교 안에서도 개신교는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가 승천하였다고 믿으면서 예수보다 마리아가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모두가 거짓이다. 예수도, 마호메트도, 마리아도 죽어 사라진 사람이요 부활 승천하여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즉 예수가 생전에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 재림을 예언하였으나 예수의 말은 사장(死藏)되었으니 무익한 말이 되었다.

본문 기사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신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였으니 그들이 평상시 모이던 장소인 마가의 2층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바람으로, 불로 임하였다는 성신이 임하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였다고 기록하였다.(행 2장)

이 기사를 토대로 지금까지 예수교는 평상시에도 성신의 도움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 집회를 열면 성신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헌신하고 있으나 실상은 성신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기도에 몰두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이상한 방언을 하게 되면 성신받았다고 만족하고 있으니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

예수 공중 재림

본문 (살전 4:15~18)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해설

예수 강림에 관하여 성경의 기사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기록한 고로 성경학자들도 여러 학설로 논쟁을 하고 있다.

제1설은 계시록 20장, 21장 기사와 바울이 말한 공중 강림(살전 4장)을 결부시켜 첫 부활에 참예하는 자는 천 년 동안 공중에서 예수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 잔치를 하면서 영광을 누리니 이것이 예수의 재림이요 천 년이 지나 성도들과 같이 예수가 백마를 타고(계19장) 지상 강림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예수의 3림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제2설은 기름 준비를 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 예수가 올 때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 잔치에 참예하는 자, 환란을 끝까지 참고 이긴 자이니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가 공중강림을 할 때에 천사를 보내어 지구상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 예수를 공중에서 맞이하고 전쟁을 치루기 위하여 군대를 집결하듯 공중에서 지체하지 않고 예수를 선봉장으로 하여 지상에 내려와 예수와 싸우려는 악한 무리를 멸하고 마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어 천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게 한 후 천년 동안 지상 낙원에서 행복을 누리는 지상 천국 시대로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니 공중 강림은 성도들을 맞이하는 혼인 잔치 재림이요 지상 강림은 세상을 심판하는 3차 강림이다.

1설과 2설의 차이는 천년 왕국이 하늘과 땅에서 전개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성경 학자들은 7년 대환란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 성도가 환란 전에 승천하여 예수를 공중에서 맞이하고 예수가 말한 대로 7년 환란은 유대인이 당하는 환란으로 해석하는 자도 있고(마 24:15 ~ 22) 성도가 땅에서 환란을 당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재앙으로 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자가 많은 것이다.

제3설은 천년 시대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 강림시에 구원 얻은 과거 죽은 자가 부활하여 살아있는 구원 얻은 자와 동시에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땅은 파멸되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생긴다는 계시록 21장을 전적으로 믿고 있으니 지상의 천년 왕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교 근 2천년 기간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광신으로 인하여 시일을 정하고 강림을 증거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으니 최근세에 들어와 지구상에 평화가 계속되면서 예수 강림을 고대하는 신도는 점차 사라지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상 천국을 찾고 있다.

바울의 공중 강림설은 2천년 예수교 역사에 신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는 도피적 삶을 살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헛된 고생을 하게 하였으니 종교가 가져온 해악을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예수 재림 교회, 말일 성도 교회 등은 땅에서 지역적으로 재난만 생겨도 예수가 오지 않나 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를 사모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백여 년 기간에 시일을 정하고 예수를 기다리다 거짓말에 속임 당한 사례가 10여 사건이 생겼다. 1992년 10월 28일을 예수 강림일로 선포하고 소란을 피운 이장림(李長林) 목사의 강림설을 믿은 자가 큰 피해를 당하였다.

바울이 예언한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

본문 (살후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강림이 임박하였다고 마음에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背道)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가 오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강림하여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임으로 폐하시리라.(하략)

해설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생업은 뒤로하고 예수의 강림을 지나치게 고대하므로 초조한 마음이 되어 이상한 꿈을 꾸어도 예수가 오는가 생각하고, 신자들이 모여 앉으면 어느 형제가 주님이 온다는 계시를 받았다느니 바울 선생으로부터 강림이 임박하였다는 편지가 왔다느니 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살기 싫은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었다.

당시 신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당연한 것이니 예수교의 제 일인자인 바울은 예수를 전하면서 자기 생전에 예수가 다시 온다고 전하였으니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들도 살아 생전에 예수를 만날 것을 믿은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

차승도

기도에 힘쓰고 감로를 받아 고통의 굴레 육에서 해방되자

증산교의 태을주 낭송으로 신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과 같은 이치로, 승리제단 식구들이 박멸소탕 기도를 열심히 하면 너도 나도 하나님 되려고 운집한다

증산교 종도들은 유의경(柳宜卿)의 수련방법을 포교방법으로 정하여 각처에서 포교활동를 일으키니, 태을주를 읽으면 광명(光明)현상이 나타나 신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태을주를 읽으면 난치(難治)의 병이 치료되는 일로 인하여 포교활동이 급속도로 전개되어 신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뒤 3년 동안에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와 서남해중(西南海中) 모든 섬 일대(一帶)에는 거의 태을주(太乙呪)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甑山教史」

승리제단 식구 중에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 마귀를 죽이는 능력을 구세주께서 부여하셨다.

"의인이 된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마귀가 죽게 되어 있다. 오늘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인간속의 '나'라는 주체의식을 이제 죽여 버리기만 하면, 바로 마귀 옥에 갇혔던 '하나님의 영'이 석방되어 나와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면 바로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마귀가 박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소극적으로 기도하면 소용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려면, 나를 죽이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기도문 테이프를 틀어놓고 저녁에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나오면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다."

-「2002_07_12 이긴자 설교 말씀 중에서」

〖 박멸소탕 기도문 〗

무량대수 마귀 일초 동안에 무량대수 횟수로 계속해서 영원무궁토록 몽땅 뿌리째 뽑아서, 성령의 검으로 난도질하여, 성령의 도끼로 짓이겨서, 성령의 맷돌로 갈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유황불로 박멸소탕, 박멸소탕, 박멸소탕, 박멸소탕, 박멸소탕, 박멸소탕, 박멸소탕, 박멸소탕

사람의 몸은 고통의 몸, 감로를 받아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된다는 것은, 하나님 될 수 있는 그러한 구비조건을 90프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야, 아무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제 감로가 되는 이슬성신이 내리는 구세주를 늘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감로만 받으면 마귀가 죽는 고로 사람의 탈을 금새 벗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는 것은 이 제단 매일 나오기만 하면 된다.

조금만 있으면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밝힌다. 구세주 얼굴에서는 나오는 빛은 꼬불탕꼬불탕 나아가는 곡선광선이기에 그늘이 없는 광명천지가 된다. 오늘날 마귀의 성품을 지닌 음양의 빛이 되는 햇빛은 직사광선이기 때문에 한국이 낮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은 캄캄한 밤이 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하여 미국도 유럽도 밤이 없게 되니, 온 천하 사람들이 항상 낮에 춤을 추며 즐겁고 기뻐하는 세상을 보내면서, 이제 날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가지고 별나라 가고 싶으면 순간적으로 간다.

현재 사람의 몸이라는 게 고통의 몸이기에 걸어댕겨도 몸이 무거워서 힘이 드니까 다리가 아프다. 이제 나이 많아지면 방광이라든지 대소변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썩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어떤 때는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은 인간이 육을 가졌기 때문이다. 육신을 가졌다는 것이 이 고통의 멍에를 매고 있는 거나 한가지다. 이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빨리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날아다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육이 있는 한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구세주 예배 말씀집 2권」 2000.10.20. 예배 말씀 176페이지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54〉

彌勒佛出世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54〉

감춰진 불경(大藏經) -1

불경에서 석존은 선지식(彌勒佛)을 만나면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문득 큰 지혜가 있고 또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마음을 닦아서 행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12부경의 정체가 드디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 12부경전이 바로 여기에 근거 경전으로 함께 제시되는 대반열반경이라고 한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예] 대반열반경 23권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제22-5

善男子 如空中月 從初一日至十五日漸漸增長。

선남자 여공중월 종초일일지십오일점점증장

善知識者亦復如是 今諸學人漸遠惡法 增長善法。

선지식자역부여시 금제학인점원악법 증장선법

善男子 若有觀近善知識者 本來未有戒定慧解脫 解脫知見即便有之 未具足者則得增廣。

선남자 약유관근선지식자 본래미유계정혜해탈 해탈지견즉편유지 미구족자즉득증광

何以故 以其親近善知識故 因是親近 復得了遠十 二部經甚深之義。

하이고 이기친근선지식고 인시친근 부득요원십 이부경심심지의

선남자여, 허공에 있는 달이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점점 자라는 것과 같이 선지식도 그와 같아서 배우는 이로 하여 나쁜 법은 멀리하고 착한 법은 자라게 하느니라.

선지식을 친근하는 이는 본래 계행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한 지견이 없었더라도 문득 있게 되며, 구족하지 못한 이는 구족하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선지식을 친근하는 까닭이며 친근하므로 인해 12부경의 깊고 묘한 이치를 알기 때문이니라.

若能聽是 十二部經甚深義者 名爲聽法。

약능청시 십이부경심심의자 명위청법

聽法者則是大乘方等經典 聽方等經名眞聽法 眞聽法者即是聽受大涅槃經。

청법자즉시대승방등경전 청방등경명진청법 진청법자즉시청수대열반경

大涅槃經中聞有佛性 如來畢竟不般涅槃 是故名爲專心聽法。

대열반경중문유불성 여래필경불반열반 시고명위전심청법

專心聽法名八聖道 以八聖道能斷貪欲 瞋恚愚癡 故名聽法。

전심청법명팔성도 이팔성도능단탐욕 진에 우치 고명청법

夫聽法者名十一空 以此諸空於一切法不作相貌。

부청법자명십일공 이차제공어일체법불작상묘

夫聽法者 名初 發心乃至究竟阿褥多羅三菩提心 以因初心得大涅槃 不以聞故得大涅槃

부청법자 명초 발심내지구경아누다라삼먁보리심 이인초심득대열반 불이문고득대열반

以修習故得大涅槃。

이수습고득대열반

만일, 이 12부경의 깊고 깊은 뜻을 듣는 이는 법을 듣는다 이름할 것이며, 법을 듣는 것은 곧 대승의 방등경전이며 방등경전을 듣는 것은 참으로 법을 듣는다 이름하느니라.

참으로 법을 듣는다 함은 대반열반경을 듣는 것이니, 대열반경 중에 부처성품이 있어 여래(석존)는 필경까지 반열반에 들지 아니했음을 듣느니라.

그러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을 듣는다고 이름하느니라.

전일한 마음으로 법을 듣는 것을 여덟가지 성인의 도라 이름하며 여덟가지 성인의 도로서 능히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을 끊으므로 법을 듣는다 이름하느니라.

법을 듣는다 함은 11공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공함으로서 온갖 법에 모양을 짓지 아니하며 법을 듣는다 함은 초발심에서부터 무상정등각(아누다라삼먁삼보리)을 이름 하나니, 초발심으로 인해 대열반을 얻는 것이지만 듣기만 하므로써 대열반을 얻는게 아니고 닦음(修行)으로서 만이 대열반을 얻느니라.*

明鍾